

축 산 정 보

동물약품 부가세 사후 환급 된다

비과세 양돈농가 범위는 성돈 500두로 확대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22일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 공포하여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축산물 생산원가 중 배합사료 다음으로 원가 비중이 높은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되어, 연간 약 400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가세 환급대상에는 동물약품 외에도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축산악취제거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가 성돈 200두에서 500두로 확대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공포에 따라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의 범위에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이 추가됐다.

'농림수산식품부' 본격 출범

정운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취임식이 지난 2월 29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로써 농림수산식품부가 본격 출범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조직이 2실 1본부 10국(단) 44과(팀)로 구성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과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을 뒀으며, 제2차관 산하에는 식품산업본부와 수산정책실을 뒀다. 식품산업본부는 식량정책단과 유통정책단, 축산정책단 3개단을 두는 한편, 축산정책팀, 축산경영팀,

자원순환팀, 축산물위생팀, 동물방역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 정학수 차관



▲ 박덕배 차관

한편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정학수 제1차관(54)은 1978년 농수산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딛고 농림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119조원 투융자 계획',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등 마련에 역할을 했다. 제2차관인 박덕배 차관(55)은 기술고시 15회로 수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수산은 물론 국제·행정 업무에 정통하다. 해양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시절 한·중 어업협정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고, 수산정책국장 때는 수협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농협사료 사료가격 평균 9% 인상

농협사료가 지난 3월 17일 사료가격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액은 1kg당 비육 36원, 낙농 34원, 양돈 32원, 양계 38원, 기타 32원 등으로 평균 인상률은 9.8%이다.

농협사료는 기존 가격을 유지할 경우 연도말 1천 205억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사료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4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비 배합사료 원가 상승요인은 10.9%로 사료가격 인상요인은 1kg당 38.2원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사료는 양축농가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인상액을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늦춰 일반사료업체 보다 7~16일 늦게 인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농협사료는 일반사료업체 보다 인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상시기도 늦어지면서 판매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공장 가동율이 312.5%

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사료는 국내 도착단가를 기준으로 한 수입 원재료 가격은 옥수수의 경우 지난 1월 270달러(톤당)에서 3월 301달러로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 3월과 비교하면 23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것. 대두박은 지난 1월 334달러에서 3월 현재 440달러로, 아자박은 178달러에서 190달러, 채종박은 259달러에서 277달러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돼지열병 예방접종 준수 절실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해 돼지고기 수출을 확보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과 전북에서 각각 1건,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한데 이어 2월에도 충북에서 1건의 돼지열병이 발병하여 3개월째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위한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하여 양돈농가의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자돈 40일령에 1차 접종, 60일령에 2차 접종 등 자돈의 경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종돈·번식돈은 연 1회, 모돈은 종부 2~4주 전 접종 등을 통해 돼지열병 박멸에 만전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료업계 해외진출 기대

농림부 해외농업개발 포럼 구성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정이 고조됨에 따라, 사료·식품업계 및 일부 NGO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해외농업개발 포럼을 구성 운영키로 해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 10여개 민간기업 및 단체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수만ha 규모의 농지를 확보해 추진 중이나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진출 및 개발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 포럼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 포럼은 지난 2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체계 구축방안, 자금지원 및 관리방안, 해외 생산품 반입 및 처리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돈육재고량 안·등심 줄고 삼겹 늘어

1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안심과 등심은 감소한 반면, 후지와 삼겹살, 목등심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돼지고기 재고량 조사결과를 추정한 결과, 총 추정량은 2만4천847톤으로 전월대비 1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안심과 등심은 추정량이 397톤, 1천540톤으로 각각 전월대비 12.5%, 14.6% 감소했으며 전지는 3천95톤으로 전월대비 11.9% 감소했다.

반면 삼겹살과 목등심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후지는 추정량이 6천466톤으로 전월대비 52.3% 늘었고, 삼겹살과 목등심은 6천600톤, 1천986톤으로 각각 23.6%, 18.6% 큰 폭 증가했다.

돼지 도축두수 감소

농림부, 검정성적 상위 20% 돼야

2월 돼지 도축두수가 1월과 견줘 크게 감소했다.

지난 2월 암돼지 도축두수는 54만6천903두로 전월 대비 20% 줄고, 수돼지는 50만4천188두로 전월대비 20.6% 큰 폭 줄어, 총 도축두수는 105만1천91두로 전

월대비 2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동월 104만6천481두보다는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2만5천 농어민에 건강보험료 지원

올해 52만5천가구 농어업인에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에 따라 올해 농어촌 52만5천가구에 총 1천35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농어업의 건강보험료 중 50%를 국고(농림부 28%, 복지부 22%)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을 확정하기 위해 4월 1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5월 농어업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국산 돼지고기 육질등급으로 차별화 소매단계 정착이 관건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육질등급제가 소매단계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돼지도체 육질등급판정이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최대 소매유통업체인 이마트 일부 지점에서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판매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신도림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등급표시 판매점을 신도림점에 이어 분당점, 일산점, 죽전점, 평촌점 등 5개 점포로 확대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른 점포로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육질등급별 표시판매를 위해 등급별 시식을 해본 결과 등급에 따른 맛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등급표시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돼지고기 육질등급표시 판매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등급표시를 향후 식육판매점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매단계에서 정착이 된다면, 육질등급을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국산 돈육 차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등급판정소는 육질등급별 거래정착이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경매된 돼지도체의 등급별 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격등급인 A등급과 B등급의 가격차이는 250원/kg으로, 이보다 육질등급인 1등급과 2등급간의 가격차이가 619원/kg으로 2.5배 크다고 설명했다.

양돈농가들이 육질등급을 잘 받으려면, 적절한 출하 중량과 출하시기를 맞추고 특히 조기 출하하거나 후기 처리를 하지 않아 낮은 육질등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운송이나 출하시 스트레스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고기 구입 선택기준 1위 '맛'

농경연, 서울시 가구 설문 결과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맛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서울시 621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주로 구입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이 평균 68.3%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81.0%가 삼겹살을, 28.8%가 목살을 구입하고, 30대는 삼겹살 69.5%, 40대 68.8%, 50대 62.5%, 60대 이상 67.4%로 조사되어 젊은 층일수록 삼겹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1999년 조사에서도 66.7%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여전히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50.7%가 '맛이 있어서'라고 응답했으며, 30% 이상이 '가격이 저렴해

서' 라고 응답했다. 한편 육류의 섭취빈도에서 쇠고기와 닭고기는 주 1회 섭취하는 반면, 돼지고기는 주 3~4 회로 섭취비율이 가장 높았다.

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농림수산물식품부는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제 도입에 따른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절차·방법 등 규정 정기심사제 도입에 따른 정기심사절차 등 마련 지정 유효기간 연장심사 및 정기심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이다.

- 개정안전문 : 농림수산물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

지난해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크게 증가

지난 한 해 양돈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PED는 2007년 한 해 동안 매달 발생했으며, 총 36건, 1만3천724두에서 나타나 2006년도 대비 34%인 3천466두가 늘었다.

한편 12월에는 울산, 충남, 경북에서 각 1건씩 총 3건, 470두에서 발병해 11월과 비교해 26% 증가했다.

어린이 기호축산물 생산업체 특별단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대해 3월 10일부터 4월 25일 까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미트볼, 햄버거패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소 등으로 전국에서 실

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판매행위, 영양성분·식품첨가물 등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보존의 적정성,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위조·변조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재래돼지 한국고유 유전특성 구명

축산과학원 양돈과를 비롯해 각도 축산연구기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돼지 6개 집단에 대한 DNA 유전자형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버크셔와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품종들과 구분되는 다른 계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는 돼지계능 상의 DNA다형성에 대한 재래돼지의 유전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재래돼지의 계통분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제유전학회에서 추천하는 초위성체 마커 16종을 이용한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 재래돼지 6개 집단의 유전적 유사도가 높은 같은 계통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모색이 같고 체형이 다소 큰 버크셔 품종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고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품종과도 유전적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운송시 구획 칸막이 설치 등 의무화

농림부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안' 입법예고

앞으로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충분한 깔짚 등을 바닥에 깔아야 한다.

또 돼지를 운송할 때는 우리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10kg 이하의 돼지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2월 15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운송차량은 동물이 부상을 당

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 유지해야 하며,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은 운송해서는 안되며,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되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혼자서 일어설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도 운송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운송동물에 대해서는 때리거나 끝이 날카로운 기구로 찌르는 행위, 머리, 귀, 뺨, 다리,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를 해도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자는 동물 운송 시에는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송밀도 기준을 정했다.

〈표 1〉 돼지 운송밀도 기준

체 중(kg)	소요면적(㎡/두)
25	0.15
60	0.35
80	0.40
100	0.42
120	0.51
>120	>0.51

경기도, 가축분뇨 처리 지원 강화

올해 51억원 투입 ...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경기도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 모두 51억여원을 투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영세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3일 용인시청에서 경기지역 시·군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2008 오수·분뇨·가축분뇨 관련 주요 업무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

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10년까지 이천과 화성지역에 하루 400㎡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여주와 연천지역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액상부식조를 교체하는 등 개선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용인·남양주·이천·화성·광주·안성·파주·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12개 시·군 1,707농가에 22억여원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 1년에 가축분뇨 28만㎡가량을 수거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 축산농가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올바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축산농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농가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이수화씨



정부는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이수화씨를 임명했다.

이수화 신임 농진청장은 '55년 경북 청도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해 공직에 첫 발을 디뎠다. 이어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미 대사관참사관 농업협상담당, 농림부 식량정책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거쳐 산림청 차장을 역임했다.

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 개최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강화순)는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질병으로부터 양돈장을 구해내자'를 주제로 제8회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PRRS(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과 최근의 양돈질병을 주제로 하여 △돼지열병 청정화 제안 △

‘위기의 양돈산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심포지엄

최근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값 폭등과 돈가 하락, 생산성 저하 등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양돈이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양돈 산업과 관련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8. 4. 3(목) 오후 1시~오후 5시
- 장소 : 한국마사회 대강당(경기도 과천 주암동)
- 사회 : 오상집 강원대 교수
- 주제발표 :
 〈주제 1〉 고곡가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김인호 단국대 교수

- 〈주제 2〉 양돈산업 위기상황과 그 해법
 - 김형린 맥스매직 대표
 - 강화순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 주최 : 농수축산신문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
- 문의 : 농수축산신문 02)585-0091
 (교환 224, 253, 254)

PRRS 안정화 방안 및 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2일차에는 최근의 양돈질병을 주제로 △한국형 동물복지 제언 △최근 양돈질병 동향 등 발표가 이어졌다.

(사)한국축산식품학회 인가

(사)한국축산식품학회(대표 이무하)가 지난 3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축산식품학회는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에 소재하며, 축산식품을 중심으로 한 동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촉진하고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국농업기계전시회 상주서 열려

농업 정보교류를 위한 2008 전국농업기계전시회가 오는 4월 16일부터 경북 상주에서 개최된다. 경북 상

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리게 될 이번 전시회는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해 18일까지 계속된다.

전시회는 102여개 농기계제조업체가 경운기와 토양개량용 기계, 파종·이앙기계, 축산용 기계, 분뇨처리장치, 수태진단장치 등 최신 농·축산기계를 선보인다. 또 북한 농기계 전시와 상주시 우수농산물 품평회, 농업기계화발전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상주시의 한 관계자는 “2008 전국농업기계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최신 농기계와 각종 자재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양돈**

